

학교주변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실시

광주시교육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위해 유관기관과 진행



광주시교육청이 하반기 학교주변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18일

실시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동구청, 동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광주용산초등학교 앞 통학로와 인근 스쿨존에서 등굣길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엔 정회국 교육감이 직접 참여했으며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용산초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50여 명이 함께했다.

참여자들은 스쿨존 불법 주·정차 금지, 보행 중 스마트폰 금지 등 다양한 문구의 피켓과 리플릿 등

을 활용해 홍보활동을 했으며, 동구청·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단속활동을 병행했다.

캠페인을 주관한 정회국 교육감은 "교통사고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안전의식 제고 및 학생 교통안전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며 "이를 위해 교육청과 유관기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학부모 등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적극 협조하여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보성교육지원청-순천대 교류 협력 업무협약

보성교육지원청에서는 보성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학과 연계하여 한 단계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포문을 열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성지역 학생들이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잠재능력을 적극 개발하고, 지역의 선도 대학인 순천대학교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와 우수 중진 및 교류 협력 사업 활성화를 보성지역 학생들이 저마다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순천대학교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는 십여 년 간 영재교육기관 또는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등을 방문하여 과학의 생활화를 목표로 과학 교육 자변 확대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밖 비형식 과학교육의 노하우와 자체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영재교육대상자는 물론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다양한 생활 과학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은 순천대학교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와 보성교육지원청의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 교류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순천대학교 입학지원실장이 동석하여 향후 양 기관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은 물론 자유학년제에 따른 대학 방문과 진로 캠프 등을 운영하기로 협의하였다.

전남교육청, 고1 진로설계 및 전공탐색 프로그램 운영

전남도교육청이 19일부터 21일까지 2박3일 동안 전남학생교육원(해남읍 소재)에서 도내 일선고 1학년 학생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로설계 및 전공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비해 학생들이 조기에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진로에 맞는 학교생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에니어그램 검사, 스마트 종합검사 결과 분석

및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 진로-진학-학습 종합 역량을 파악하고, 진로 특강, 선배와 함께하는 멘토링에 참여해 관심 진로와 전공에 대해 깊이 있게 안내받게 된다.

특히, 학생 희망 전공 별 10개 분야로 나눠 늦은 밤까지 대입 현장지원단(3명)과 대학 입학사정관(1명)으로부터 학생부기반 자기소개서 설계 및 1:1 학교생활 컨설팅을 받는다.

또한 수능 출제위원 특강 및

영역별 대표 강사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교과 학습과 2022 수능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정과 위경중 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 스스로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개척해나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진학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학부모회 대표 네트워크 협의회 운영

목포교육지원청



목포교육지원청은 17일 예술웨딩컨벤션에서 초·중·고등학교 학부모회 대표 120여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학부모회 대표 네트워크 협의회를 개최했다.

학부모회 대표의 리더십을 키우고 학교교육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이번 네트워크 협의회는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이 되었다. 특히 이번 네트워크 협의회는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 운영 전반의 참여를 통해 민주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교육 발전의 한 주체로서 바른 역할을 하는 협력적 교육공동체의 기반이 되었다.

이날 참여한 학부모회 대표들은 "네트워크 협의회가 일방적 운영이 되지 않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여 소통하는 협의회 운영에 감사하다"며 "목포학부모자율연합회 활동을 통해 학교교육과 목포교육 발전에 함께 소통하고 힘쓰는 학부모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 "앞으로도 학교 학부모회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학교 참여의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교육청, 유치원 에듀파인 정착 도모

광주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서 국가관리체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다.

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에듀파인 1단계 도입 사립유치원 69개원을 대상으로 회계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1개월 동안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17일부터 12월말까지 주1회 이상 상설교육장을 운영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현재 에듀파인 1단계 도입 69개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활용해 회계처리(예산·수입·지출 등)를 실시하고 있어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다.

교육청은 사립유치원들이 에듀파인 활용에 대해 어려움이 없도록 상설교육장을 찾는 사립

유치원 사용자와 에듀파인 멘토단을 1:1 매칭해 현장에서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하고 있다.

시립유치원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교육에 참석한 한 사립유치원장은 "에듀파인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교육청에서 사용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상설교육장을 한 달 동안 운영하여 꾸준히 참여한 결과 에듀파인 시스템이 익숙해졌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행정예산과 최두섭 과장은 "2020년에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이 전면 도입됨에 따라 전체 사립유치원 158개원을 대상으로 회계이론과 에듀파인 기능을 병행한 집중 교육을 실시해 사립유치원 사용자가 에듀파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생명과학고, 선진 유럽 농업 체험학습

전남생명과학고는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친환경농업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다.

이번 체험학습은 미래 농업 CEO로 성장하게 될 10명의 학생들과 농업교사 2명등이 참가하였다. 원예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와 축산과 농촌관광에서 앞서가는 독일의 우수 농업기관과 산업체를 방문함으로써 급변하는 새로운 농업의 모델을 견학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독일, 네덜란드 현지 농가와 6차산업화 하고 있는 Agriport A7와 Tomato World, 첨단 유통의 알스미어 화훼경매장, 제조의 Vinothek Von Weingut, Bio

Hof Gensler 등 다양한 농산업체를 방문하여, 미래 친환경농업 0E0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아울러 세계사의 중심인 독일과 네덜란드의 역사적인 유물들과 명사들의 생가 및 박물관을 견학하며 글로벌 마인드를 기르고 세계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기회였다.

전남생명과학고 최광표 교장은 "국제 교류를 통하여 외국의 선진 농업기술을 배우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여 친환경농업 영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